

붓질의 공명

미술평론가 호남대 교수_윤진섭 2010.12

박다원의 근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초기작에 대한 선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서체적 추상(calligraphic abstraction)'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그의 그림이 다른 작가의 그림과 다른 차별성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그의 그림의 근저를 이루는 고유의 미적 특질인가 하는 점이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보는 것과 같은 박다원의 일필휘지의 선묘는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나는 우선 1990년대 후반에 그가 그린 일련의 작품들에서 그 연원을 찾고 싶다. 얼핏 무심코 그린 아동화를 연상시키는 Interface라는 제목의 그림들은 자유로운 필선에 의한 놀이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뚜렷이 무엇을 표현하거나 묘사하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라기보다는 행위의 무목적성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곧 그의 그림의 요체가 '놀이 정신'에 입각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찍이 네덜란드의 문화사가인 호이징가(Johan Huizinga)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란 용어를 창안하여 이 놀이성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문화에 가장 근간이 되는 속성으로 파악한 바 있다. 심지어 그는 놀이가 문화에 앞서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놀이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 행위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박다원은 1990년대 후반에 제작한 일련의 작품을 통해 회화에서의 놀이성에 주목했다. 아동화를 연상시키는 이 무렵 그의 그림들은 자유로운 필선에 의한 드로잉과 무의식의 저변에 깔린 일화들, 그리고 선사시대 동굴화를 연상케 하는 무작위적인 행위를 통해 자기 심리의 근원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박다원이 시도한 Interface 연작은 초기작에서 배경을 제외하고 필선에 주목한 결과물이다. 이 무렵부터 박다원은 말끔하게 단색으로 칠한 화면에 서체적 선묘를 베푸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그것은 짙은 검정색이나 묽게 희석한 검정색, 혹은 노랑색과 같은 단색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화면은 그렇게 해서 보다 명료해지고 밝아지게 된다. 이 단색의 화면 위에서 그의 정신은 오직 행위를 통한 조형과 화면에서 행위의 흔적이 빚게 될 구성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회화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서체적 추상의 경향을 보이는 작가들이 묻는 질문과 근사한 것이다.

이 무렵 박다원의 그림에서 보이는 미적 특질은 즉발적인 터치가 캔버스 표면에 가해질 때 나타나는 효과와 관련된다. 그것은 물감의 농도에 따라 표정을 달리하는데, 가령 동양화에서의 선염을 연상시키는 번짐이라든지 농묵에서 오는 파필 효과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서체적 추상의 분위기는 그가 유년과 청년시절에 접한 가정환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의 양친은 미술품 수집과 미술서적에 관심이 많았고 그는 서화와 미술서적에 둘러싸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양친의 소장품에는 영남문인화의 거두인 석재(石齋) 서병오(1862-1935)를 비롯하여 죽농(竹農) 서동균과 같은 대가들의 작품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그 역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잠시나마 서동균을 사사하게 되는데, 그때 '선은 마음으로 굿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 그러나 박다원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된 보다 직접적인 계기를 대학시절 추사의 세한도

를 보면서 느낀 충격에서 찾는다. 제한도를 접했을 때 마음속으로 느낀 어떤 전을 같은 것이 자신의 심중에 내재된 기질과 맞닿으면서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다원이 한 순간에 긋는 즉발적인 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화가가 긋는 선은 나름대로의 의미와 표정을 지닌다. 그것을 근거로 품격과 질적 가치, 혹은 예술성을 따지는 것은 비평가와 같은 전문적인 해석자의 몫이다. 미적 가치의 판단 역시 그러하다. 그렇다고 할 때 박다원의 작품에 대한 판단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우선 박다원의 작품에서 엿보이는, 의식을 푼 상태에서 나타나는 선의 해방적 측면에 주목하고 싶다. 이는 박다원이 이제까지 자신의 그림을 지배해 온 유희적 특질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의 상태, 곧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空)'의 상태를 지향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마음을 비우는 가운데 나타나는 적멸(寂滅)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적멸이란 무엇인가 한 설명에 의하면, "적멸은 고요히 없는 것이니, 불성 가운데 한 상도 없는 것이다. 상이 없어서 하는 일이 없어 죽고 사는 큰 시름이 다 없으므로 즐겁다고 한 것이다. 적멸은 살지도 않으며, 죽지도 아니하는 것이니, 중생은 번뇌를 없애지 못하였으므로 일이 있어 좋은 일을 한 인연으로 후생에 좋은 몸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한 인연으로 후생에 곱은 몸으로 태어나서 살다죽다 하여 한없이 괴로움을 받는데, 부처는 죽고 삶이 없으므로 적멸이 즐겁다고 한 것이다."

박다원의 작품은 이처럼 차별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지향한다. 그러한 무차별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선수행을 하듯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에 잠긴다. 그의 선들은 세상에 대한 번잡한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린 선들은 단색의 투명한 바탕위에서 독자적으로 존립한다.

박다원은 "선과 선 사이에 인간의 시간과 역사, 삶이 표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시간과 역사가 인간적 삶의 어떤 보편적 계기를 의미한다고 하면 그가 긋는 선은 그것에 대한 농축된 유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개별적인 것임에 반해서 시나 회화와 같은 예술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명제인 지금 그리고 여기(now & here)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여기(here)와 숨을 쉬고 있는 지금(now) 이란 두 계기의 겹침을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박다원은 실존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작업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박다원의 그림은 붓질이 드러내는 공명에 대한 진술이다. 붓질이 어떻게 공명하는가. 청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이 단어를 과연 조형에 대입할 수 있을까 나는 붓이 평면 위를 지나 드디어 평면과 결별을 할 때, 비록 붓은 자취를 남기지 않으나 그 여운이 여전히 평면 위에 남아 있음을 본다. 그것은 마치 동종의 여운이 사라진 것 같으나 어딘가에 남아 떠도는 것과 같다. '지금 그리고 여기 -hic et nunc-'에서 벌어진 조용한 한 '사건(event)'이 물결의 파장처럼 조용한 울림을 불러일으킨다. 캔버스에 찍은 점 하나, 그은 선 하나가 하나의 조용한 파장을 일으킨다. 박다원의 그림은 이처럼 적요한 캔버스 공간에 점과 선이 가해질때 나타나는 붓질의 공명에 대한 진술인것이다.